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순례 '그길을 따라 걷다' 체험 수기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시복 시성 기원 순례 후기 (종합편)

제주교구 중문동 성당 최종년 고스마 다미아노

일정

^제1차 2022 01 07

제주 → 음성 → 봉암성지 → 제주

^제2차 2022 02 08~09

-첫날 제주 김해공항 울산 병영장대순교지

살티공소 경주 진목정 부산

-둘째날 부산 수영장대순교지 오륜대순교자묘역

김해 제주

^제3차 2022 03 11~03 16

-첫날 제주 김포공항 명동성당 종로성당

(구)좌포도청 당고개순교지 명학역

수리산교우촌 안양

-둘째날 안양 진천 배티교우촌 진천 충주 봉양

-세째날 봉양 배론교우촌 청주 보은

명에목교우촌 청주 아산 남방재 아산

-네째날 아산 청양 화성 다락골 청양 도양골 미산

서천 전주

-다섯째날 전주 전동성당 치명자산 숲정이성지

초남이성지 전주 군산 선유도

-여섯째날 선유도 신시도 양업신부님체류지 군산

제주 (순례 마침)

^순례를 하게 된 경위

지난 1월 음성으로 이사를 하고, 근처에 봉암성지를 알게 되었다 특히 이곳은 최양업 신부님과 관련된 곳으로 교구에서 2020년 11월 성지로 선포하였기 꼭 찾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시복시성 순례 사업'을 알게 되고 그것은 내게 숙명처럼 다가왔다 '가능하면 금년 6월까지 순례를 마치자' 라고..

이래서 제주에서 지내지만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양업 신부님과의 인연

2011년 네팔 트레킹을 하였다

초행에다 홀로, 흔히 도움받는 가이드나 포터 없이 마친 에베레스트 B/C(3 Pass 포함) 트레킹이었기 꽤 어려웠다 25일을 산에 있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천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호수천사와 길 위의 순교자 양업 신부님이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다

^이제 순례지로 가자

서울 좌포도청터와 기념 성당(종로성당) 순례

청계천을 건너 좌포도청 기념성당인 종로성당으로 향했다. 높다 못해 아득한 꼭대기가 되어 버린 빌딩들 철근 덩어리에 갇혀 바람 햇빛길도 안 보인다. 서울 곳곳에 늘어선 고층 빌딩이며 아파트군을 보며 꽃히는 생각 '자연은 참 대단하다' 전기야 뭘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저 안의 무수한 사람이 매일 마시고 쓰는 식수며 생활용수가 얼마일 텐데 막히거나 모자라지 않고 주어지지 않은가. 그 엄청난 양은 헤아릴 수나 있을까?

하느님은 위대하시다!

종로 입구, 인사동 들어가는 길, 낙원상가 앞에서 드는 소회..

박해 100년 동안 좌포도청에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는 수천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한 뒤 다른 곳으로 끌려가 순교한 성인들은 정하상 바오로 등 68위이며 복자는 이성례 마리아 등 32위에 이름)

^특히 1795년 소위 '복산사건' (주문모 신부 체포 미수 사건)으로 윤유일 바오로, 지황 사바, 최인길 마티아가 밤새 혹독한 매질로 시신도 수습 못하고 그날로 목숨을 바친 곳!

지하에 있는 당시 좌포도청의 박해 자료실에 들르다

소년 성인 유대철 베드로의 勇德에서 주문모 신부님의 용덕이 오버랩된다.

복산사건 때 겨우 피신한 신부님은 이후 비밀리 활동을 한다. 1801년 신유사옥 사건이 일어나고 사방 옥죄오자 우선 중국으로 피신하기로 하고 거의 국경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수많은 신자가 당신 때문에 죽어가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스로 발길을 돌려 의금부로 나선다.

'Quo vadis, Domine?'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순교의 땅 로마를 벗어나려 했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네가 죽지 않으려 피하니, 내가 나의 양들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 하신 예수님)을 그는 뵈지 않았을까! 뵈옵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처럼 발길을 돌려 스스로, 스스로 순교의 길로 돌아섰겠지!

이곳에 이르신 신부님의 第一聲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중국인 신부요!'

아, 천사가 놀라고 천상의 아버지가 가슴 쓸어내리는 용약할 포효 아닌가!

헤롯의 불륜을 고발하고 칼을 받은 세례자 요한의 막힘없는 천둥 외침인가!

우리 존경하고 흠모하는 주 야고버 신부님은 그 해 새남터에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으신다

이렇게 신앙의 여명기 조선 땅의 최초의 외국인 신부로서 7년 여 선교사의 삶을 하느님께 바쳤다

^양업 토마스 신부의 아버지 경환 프란치스코는 이곳에서 주리질, 주장질에 이어 치도곤 110대, 주장과 태장 합 340대를 맞고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 형리들 조차도 놀라 소리 친다.

'저놈의 몸은 옥신이 아니라 木石이다'

그 후 성인은 포장대리 앞으로 끌려 나가 치도곤 50대를 맞으니 그것이 최후의 출도요 형 별이자 신앙고백이었다. 옥으로 돌아온 성인은 '예수님께 내 목숨을 바치고 도끼날에 목이 잘리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옥중에서 죽는 것을 천주께서 원하시니 천주의 섭리가 이루어지 리이다'라고 말한 얼마 후 숨을 거두신다.

때는 1839년 9월12일 나이 35세였다.

이렇게 성인은 포도청의 옥사에서 杖毒으로 목숨바쳐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다.

^순례 중 기억나는 일

가. 수리산교우촌 순례

명동성당 지하성당과 종로성당 기념관에서 좌포도청 관련 박해자료를 둘러보고 당고개 순교지로 이동하다

거기서 수리산 교우촌으로 향했다 지도앱에서 알려준 대로 명학역에서 출발, 교우촌을 찾아 걸었다

1시간 여 정도 걸린다는 앱 자료만 믿었는데, 산으로 들어와 걷자니 세 배는 걸린 듯 하다. 초행길에다 이정표가 없는 갈림길도 나오고 특히 땅거미가 내려 어둑해지니 낭패가 되기 십상이었다. 성가를 부르고 순교자에게 기도를 드리며 순례길을 채근했다.

불안하거나 두렵기보다 웬지 평안한 마음에 안도가 되었다.

저녁 7시. 그때 성인의 묘소 앞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절로 기도가 나왔다.

'아 좋으신 주님!

어두워 더 걸을 수 없을 때에 맞춰 교우촌, 성인의 묘소 앞에 서도록 이끄셨네요, 감사합 니다'

나. 배론 성지를 찾아갈 때

안양에서 다음 성지로 나갈 때다

계획을 짤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안양에서 어디로 가느냐?였다 먼저 제천으로 가서 다음 행선지인 아산 청양 부여로 가기 용이한 진천으로 나오기로 어렵사리 정했다.

제천 행 첫차표를 끊고 기다리는데 마치 뭐에 홀린 듯 몇분 앞에 온 백암행 차를 타게 되었다

승강장에서 기다리던 승객이 백암 차가 왔으니 어서 타라고 하는 듯 했고, 순간 배티 성지가 백암(실제는 백곡)에 있다는 착각이 더 해져 차를 바꿔 타게 되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계획과는 다르게 진천으로 먼저 간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나의 계획 코스보다 근 하루를 줄여주었다. 제천에서는 충북선 열차가 있어서 청주까지 쉽게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몽 간 행선지를 바꾸게 된 미스테리가 잊히지 않는다.

다. 제천 배론 성지 전야

늦은 시각에 봉양 숙소에서 도착하여 순례 안내서에서 양업 신부님의 마지막 선종에 이르는 길을 읽었다.

남방재 출생 조화서 베드로 복사와 함께 한양으로 가는 길. 경주 진목정 공소에서 대구를 거쳐 문경의 여우목 공소, 청안(현 증평읍 연탄리), 소강정 마을(현 진천읍 신정리)로 이어진 여정..

힘겹다 10년이 넘게 실재 없이 흩어진 교우촌을 찾아다니는 과로에 허약해진 몸은 장질부사의 기운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천상 나라에 드신다.

소상하게 나온 마지막 여정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의 그 길이 떠올랐다.

^그 길을 복원하자.

예루살렘에도 '복음의 길'(The Gospel Trail)이 있다. 나자렛에서 카파르나움까지 예수님께서 복음선포를 하며 친히 다니셨던 약 62키로의 길을 정부에서 복원하였다고 한다.

또한 4천년 전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던 세켄 베텔 베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로 이어진 북에서 남으로 난 길을 '족장의 길'(개신교 번역)이라 하여 새기고 있단다.

(과문 탓인지 모르나 가톨릭에서 부르는 이름이 없다면 '신앙 선조의 길'이라면 어떨까 싶다)

토마스 신부님께서 마지막 걸으셨던 이 길도 찾고 복원하여 마땅한 이름도 짓고 신부님의 영웅적인 영성을 새기며 함께 할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숙소에서 마지막 행적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마냥 기쁨 대신 가슴 메는 비탄의 비명이 나왔다.

"아, 가엾은 우리 신부님"

알기로 신부님의 마지막 행적에 관하여는 아직 확인이 덜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교회가 노력하여 정리해 가야 할것이라 본다.

라. 부여 도양골 성지를 들어갈 때 만난 기사님

어리디 어린 장애아를 두고 몰래 떠난 부인, 증오가 깊은 상처가 되어 수십년을 안고 사신 분 -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하지않느냐고 했을 때 여태 나이가 30이 넘는 장애 지식을 키우는 그에게는 용서라는 말마저 사치가 되어버린 듯..

꼭 닫힌 가슴이었지만 어렵사리 '기도 중 기억하겠다' 는 말을 했을 때, 그의 짧은 대답에서 나는 보았다 오랜 시간 그를 누르는 뭔가 맺돌이 조금이라도 내려진 듯한 그 무엇을..

마.부산 수영장대성지를 찾아가면서

늦은 시간, 숙소를 찾아 광안리역 지하도를 건너다 노숙인 같은 권 선생이란 분을 만나다. 안동이 고향이었나 (내 어머니도 안동이 본이라 맞장했지)

일당 노동자인 듯한데 세끼를 굶었다고 어렵사리 말을 꺼냈던 분..

라면에 김밥이면 된다는 그를 제법 먹을만한 곳으로 뵈시고(왜 그의 자태에서 예수님이 떠올랐는지.. 그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는 것이 더 적확할 수도) 갔다. 그는 종일의 허기를 세 공기의 밥과 세 차례의 추가 찬으로 채웠다. 다 비운 찬 그릇을 보며 또또 달라고 하였을 때, 주인장 미안해서 내가 드렸단 말 -

'사장님 찬 값은 따로 받으세요'

이 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지근거리의 수영장대성지를 찾지 못하고 뱅뱅 헤맨 탓이라면 이 헛갈림에도 당신의 뜻이 계셨던걸까..

헤어질 때 그에게 신분을 밝혔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순례를 마치고 (에필로그)

지난 1월 7일에 시작한 전국의 16개 성지의 순례가 두달 여 지난 3월 16일 마쳤다

나야 문명의 산물인 비행기에 기차, 버스와 택시로 쉬 다녔지만 당시의 양업 신부님은 어 떠하셨을까 곳곳에 흩어진 교우촌을 찾아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걸음을 재촉하셨을 신부님을 떠올린다.

이번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로 이어진 순례

특히 대중교통에 의지하여 낯선 곳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마칠 때까지 길 위의 순교자께서 감히 함께 하여 주셨음을 고백한다.

길지 않은 여정에 기억나는 만남도 있었다.

^울산 일정을 도와주었던 기사님 -

미신자인 그에게 연감생심 "신앙의 센스"에 대하여 설파'(?)할 수 있는 대화를 이끌었고..

그는 청하지도 않은 요금의 상당액을 깎아 받으려 하여 당황하였다.

덧붙여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였기 환승을 할 경우에는 다음 차 시간이 여간 신경이 써지지 않았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건지?

미지막 차는 끊어지진 않았을까?

그러나 막차 시간을 맞추지 못한 때가 없었다.

마치 다음 차 시간에 맞춰 탄 것처럼, 그래서 톱니바퀴 같이 연결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하였다.

그래서 선불고 가볍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순례는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시작하여야 되겠지만 너무 계획 세우는 데 함몰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지순례에 영성적 의미를 보태게 된 것은 K 신부님의 강론이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4가지 중에 세번째 방법이 '성지를 순례하라!'였다. 빛이 머무는 곳, 하느님의 사랑이 강렬한 빛이 되어 품어 나오는 땅 - 거룩한 성지에 머무리라!

이제 순례를 마쳤다.

돌아보니 은총의 시간이었다.

마음이 열리고 활기가 솟고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신시도를 들어가기 전 전주에서 묵었는데 오래 전부터 찾고 싶었던 초남이 성지를 들른 것은 행운이다. 이른 아침 전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치명자산에서 초남이까지 20여 키로를 걸었다 얼마 전 기적같이 발굴된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 외 2분을 뵈게되는 영광도 있었다.

피의 순교가 없는 이 땅, 이 시대에 박해는 한낱 지난 얘기며 교회사로만 다가오며 살아간다 -

피의 흔적이 뻗어 그 현장을 찾아 순례하면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 주님을 증거한 순교자의 신앙을 가슴으로 새기려 애썼다.

나도 위주치명할 수 있다면...

아나로그 시대에 디지털 방식의 순례길이었을까.

어떤 날은 기차 1회, 버스 8회, 택시 2번을 같이타는 강행군이었으며 수리산이나 남방재 교우촌을 순례할 때에는 사위가 어두워진 오후 7시가 넘기도 했다.

길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의미도 있었다.

이번 순례는 오랫동안 나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사는게 중요하다.

잘 살아야 한다.

보다 성숙한 인간

보다 완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죽음으로 신앙을 지킨 분들을 기억하라!

오! 저의 주보 양업 토마스 신부님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바다 건너 홀로 떠날 백팩 순례길에도

함께 하여 주소서!

+ 주님

길 위의 순교자

하느님 자비의 사도

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청하오니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교회는 그의 성덕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마침)